연변, 단오절 기간 55만여명 다녀가

단오 련휴 기간 연변의 문화관광시장은 5.1절 련휴의 폭발적인 인기 추세에 이어 비교적 큰 성장을 이룩했다. 전 주적으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인원 55.7만명으로 동기 대비 46.19% 증가하고 국내 관광업 수입은 4.8억원으로 동기 대비 46.79% 증가해 모두 전 성 3위를 차지했다. 연변을 찾은 관광객중 '00후' 출생 관광객이 27.22%로 가장 많았고 '80후' 관광객이 21.13%, '90후' 관광객이 20.98%로 그 뒤를 이었다.

연변은 '문화와 자연 유산의 날' 연변 집중전시 및 피서관광 시즌 가동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연길시 아리랑광장을 주회장으로 하고 각 현, 시에 분회장을 마련해 무형문화유산 제품 전시 판매, 단오절 민속 체험 등 활동을 전개하고 전 주 각급 전통기예, 전통미술 등 공예류 무형문화유산 종목 32개를 선보여 많은 관광객들이 무형문화유산의 아름다움, 무형문화유산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인기 관광지들이 지속적으로 각광받았는데 주내 중점 풍경구에서 연인원 15.35만명의 관광객을 접대해 566.28만원의 관광수입을 실현했다. 그중 룡정시 비암산문화관광풍경구는 연 3.51만명의 관광객을 접대, 35.87만원의 관광수입을, 연길시 모아산(공룡)문화관광구는 연 6.75만명의 관광객을 접대, 383.31만원의 관광수입을, 훈춘시 방천풍경구(방천촌)는 연 4.36만명의 관광객을 접대, 67.35만원의 관광수입을, 돈화시 륙정산문화관광풍경구는 연 7,300명의 관광객을 접대, 79.75만원의 관광수입을 실현했다.

제품 공급이 풍부하고 다양하였는데 자동차려행, 도시산책이 단오절 련휴 기간 인기 관광 주제로 떠올랐다. 관광객들은 도문 통상구, 국문, 경계비, 남양정 등 곳을 많이 찾았는데 도문통상구풍경구에서 일광산에 이르는 연선은 연인원 8.5만여명의 관광객을 접대했다. 향촌관광 또한 크게 인기를 모았다. 화룡 광동촌이 중요한 목적지로 부상했는데 마을을 누비는 작은 기차, 동야락원 등을 체험하러 찾아온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광동촌에서는 단오절 기간 8.6만원의 관광종합수입을 실현했다.

려객수송이 원활하고 안정적이였다. 단오절 련휴 기간 연길차무단 관할구역내에서는 51.5쌍의 려객렬차가 운행되였는데 발송 려객은 연 11.8만명, 일평균 연 3.9만명이고 도착 려객은 연 11만명, 일평균 연 3.6만명이였다. 연길공항은 15개 항로를 운행했는데 루계 106회의 항공편 리착륙을 보장하고 1만 4,757명의 려객을 수송해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9%, 6.7% 증가한 수준을 기록했다. 그중 57회의 국내 항공편 리착륙을 보장해 연인원 7,213명의 려객을 수송하고 49회의 국제항공편 리착륙을 보장해 연인원 7,541명의 려객을 수송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3.3%, 25.6% 증가한 수준이다.

단오 련휴 기간 상업무역 활동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였는데 명절 소비 시기를 다잡아 소비쿠폰 310만원을 방출하고 중점 상업무역기업을 조직해 소비 판촉 활동을 50여회 전개해 3,000만원에 가까운 판매액을 실현했다.

각 현, 시에서 '단오' 주제와 결합해 일련의 판촉 활동을 전개해 명절경제를 전면적으로 활성화시켰고 숙박, 료식업 열기 또한 뜨거웠다. 중점 숙박기업에서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강화해 주내 29개 한도액 이상 숙박기업의 평균 입주률이 60%에 달해 동기 대비 13% 향상되고 루계로 498.1만원의 영업액을 실현했다. 료식기업들은 메이퇀 등 플래트홈과 련합해 미식쿠폰을 출시했는데 전 주 한도액 이상 료식기업에서 600만원에 가까운 영업액을 실현해 지난해 동기 대비 15% 증가, 고객은 연 10만명에 달해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메이퇀의 통계에 따르면 연변의 단오절 기간 활성화 상가수는 동기 대비 17.6% 증가하고 생활써비스 소비는 동기 대비 7.5% 증가했으며 현지 생활써비스 소비는 전 성 3위, 전국 97위를 차지했다.

온라인 소비 품목이 풍부하고 량이 충족했다. 중점 백화점 기업을 조직해 풍부한 형식의 온라인 판촉 활동을 출시했다. RCEP 연변다국경수출입쎈터 화장품관은 '618 년중 할인' 판촉 예열 활동을 펼쳐 800여종의 상품을 할인 가격에 판매해 1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단오절 련휴 기간 연변의 각급, 각 부문에서는 가장 높은 기준, 가장 엄격한 요구, 가장 실제적인 조치로 전반 사회 안정, 량호한 시장 질서를 전력으로 확보했다. 명절 기간 연변에서는 중대한 돌발민감사건, 비교적 큰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도로교통이 원활하고 관광지의 질서가 량호했다.

'1, 3, 5분' 신속대응기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공안무장경찰 련합 무장순찰을 가동했다. 관광지, 당정기관, 백화점, 광장, 시험장, 기차역과 공항 등 중점부문과 인구밀집 장소에 대한 순찰 강도를 높이고 보행순찰, 차량순찰, 지정경계의 상호 교체 방식을 통해 경찰 순라률, 관리률과 통제력을 제고했다.

이 밖에 단오절 련휴와 대학입시가 겹치는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교통경찰부문에서는 시험장, 관광지, 도시 출입구 등 장소 주변에 경찰력을 과학적으로 배치해 차량의 질서 있는 통행을 보장했으며 '교통순찰소' 협력기제에 의탁해 경찰력 투입 강도를 높임으로써 졸음운전, 음주운전, 취중운전 등 교통위법행위를 단속했다.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관광지 및 관광 연선의 료식업체, 고속도로 휴계소, 단체식사 접대단위, 도시 주변 농가락과 레저오락장소, 왕홍음식점, 배달량이 비교적 많은 료식단위를 중점 검사대상으로 해 료식단위가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엄격히 시달하도록 촉구했다.

/ 연변문화관광

문화관광 주제 뻐스, '새옷' 단장으로 달린다

8일, 연변 문화관광 주제 맞춤형 뻐스 12대가 주정무중심에서 일사불란하게 출발해 길거리에 나서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연변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은 '연변 문화관광 당신과 함께 연변을 려행한다'는 홍보 설계 리념을 제시하고 '민속관광', '미식관광', '변경관광', '빙설관광', '려행촬영관광', '축구관광' 등 여섯가지 테마를 내용으로 하는 12대의 뻐스를 특별 제작했다. 저마다 다른 주제의 '옷'을 차려입은 이 뻐스들은 연길시 주요 뻐스 로선을 따라 운행하며 연길서역, 공항, 모아산, 중국조선족민속원 등 다양한 관광명소들을 지나게 된다.

알아본 데 따르면 문화관광 주제 뻐스는 연변의 문화, 관광, 체육 요소를 잘 녹여낸 화려한 디자인과 생동감 있는 이미지로 연변의 독특한 문화, 아름다운 자연, 다양한 체험활동을 매력적으로 선보이게 된다. 디자인은 연변의 산맥, 습지, 호수, 얼음과 눈, 변경, 관광명소, 카페, 음식, 공연, 축제 등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4면 채색 디자인으로 연변 각 현, 시의 문화관광자원을 조화롭게 결합시켜 연변 려행의 새로운 명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연변 관광은 뜨거운 인기를 유지하며 '중국의 아름다운 생활 도시—10대 매력 방문 도시', '중국 피서관광 우선 선택지' 등 수많은 타이틀을 차지했다. / 김영화 김가혜 기자

연변 피서관광 로선 공개

8일, 2024년 '문화와 자연 유산의 날' 연변 집중전시 및 피서관광 시즌 가동식에서 연변 피서관광 로선이 공개된 가운데 G331 가장 아름다운 변경려행, 생태건강양생려행, 즐거운 여름 가족려행, 고금대화탐험려행 등 4가지 주제 관광 로선이 베일을 벗었다. 려행객들은 해당 관광 로선을 따라 연변의 무형문화유산을 체험하고 가무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전람을 감상하는 한편 지역의 특색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G331 가장 아름다운 변경려행 로선은 훈춘 방천풍경구에서 시작해 도문통상구풍경구, 도문 일광산삼림공원, 백년부락, 삼합관광풍경구, 화룡 선경대 국가급 풍경구, 화룡 군함산풍경구, 장백산홍석석봉생태풍경구를 거쳐 장백산협곡부석림을 련결하는데 해산물, 꿩, 닭곰 등 지역 특색을 체험할 수 있다.

생태건강양생려행 로선은 연길 모아산국가삼림공원, 훈춘 대황구생태풍경구, 만천성국가삼림공원, 호기문화관광풍경구, 배초구화곡 등을 잇는데 3일간의 일정을 추천하며 삼계탕, 보쌈, 추어탕, 보신탕, 사과배커피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여름 가족려행 로선은 연길공룡왕국, 연길불야성, 연길왕홍벽, 유룡만관광풍경구, 량전백세운동휴일풍경구, 비암산문화관광풍경구, 화룡 광동조선족민속촌, 청룡어업 등을 련결하는데 이 관광 로선에는 꿩, 비빔밥, 랭면, 콩국수, 순대, 투도온면, 생선료리 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

고금대화탐험려행 로선은 연길공룡박물관에서 중국조선족민속원, 안명호소산촌, 중성조선족생태촌, 륙정산문화관광풍경구, 장백산대관동문화원, 장백산력사문화원까지 이어진다.

/ 김영화 김가혜 기자

G331 국도 훈춘 구간 수려한 풍경으로 인기 급증

이곳은 '국가위생도시', '국가삼림도시', '국가원림도시', '전국록화모범도시', '전국 백개 심호흡소도시', '국가생태문명건설시범구'이다. 여기는 중국과 로씨야, 조선 3국 접경지대이고 '호랑이와 표범의 고향', '철새의 천국'이며 일년 내내 국가 2급 표준 이상 공기질을 유지하고 수질 표준 도달률이 100%에 달하는 식수원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불리우는 연변개방관광대통로 G331 국도 길림성 구간의 종점이고 중국과 로씨야 나아가 중유럽을 잇는 새로운 통로이며 대두만강개발개방 경제벨트의 중요한 요충지이다. 이곳이 바로 동북아 명주 도시인 훈춘이다.

G331 국도 길림성 구간의 총 길이는 1,437키로메터로 집안시를 시발점으로 하고 훈춘시를 종점으로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국경도로가 길림성에서 관광자원이 가장 풍부하고 발전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라고 말한다. G331 국도 길림성 경내의 종점인 훈춘 구간은 연선의 풍경이 수려하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밀강향, 영안진, 하다문향, 춘화진 등 여러 아름다운 변경마을을 관통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변경문화, 자연경관, 생태체험이 어우러진 관광 화폭을 선사한다.

시내에서 26키로메터 떨어진 밀강향은 훈춘을 지키는 '서대문'이다. 산과 물이 많고 경치가 아름다우며 밀강하가 가로지나 향촌 캠핑 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천연적이고 최적의 '항만'이고 '연어의 고향'이기도 하다.

밀강향 대황구매력계곡생태풍경구에 들어서면 천연 산소바에 들어선 것 같다. 이곳의 삼림피복률은 98.7%에 달하고 공기중 산소음이온은 립방센치메터당 4만 3,000개에 달하며 홍송, 노란 파이내플, 수곡류 등 진귀한 수종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1급 보호 수종인 삼나무도 분포돼있다. 대황구당사교양기지는 성급 애국주의교양기지, 성급 문물보호단위로 국가새세대관심사업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애국주의교양기지로 명명되여 '전국 홍색관광 고전풍경구 목록'에 입선됐다.

밀강향에서 영안진을 가로질러 가노라면 구불구불한 두만강이 도로와 함께 희미하게 나타나 관광객들은 변경의 이국적인 풍경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시내를 넘어 하다문향을 가로질러 가면 땜 높이 44.5메터의 로룡구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수면은 푸른 물결이 출렁이고 제방의 버드나무는 푸르르며 꽃향기가 코를 찌른다. 떼를 지은 비오리(秋沙鸭)가 물놀이를 하며 전설의 '관광객'인 연어는 이곳에서 고향으로 헤염쳐간다.

하다문향 삼도구 설대산기슭에 위치한 조수호폭포는 협곡 사이에서 흘러내리는데 이곳은 물살이 거칠고 주변은 산이 높고 숲이 빽빽하며 협곡이 깊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색다른 모습을 자랑하는 이곳은 관광객들이 나들이하고 관광하고 탐험하는 최적의 장소이다.

춘화진에 이르러 해발 1477.4메터의 삼림산이 위치한 이곳은 21세기 중국 대륙의 첫 해살이 비추는 지역으로 삼림산은 관광객들이 일출을 보고 소원을 비는 인기 명소로 자리잡았다. G331 국도 흑룡강성과 길림성 49호 경계비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깊이가 백메터에 육박하고 칼로 깎은 듯한 가파른 절벽이 나타난다. 넓은 원시림은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깔린 록색담요와도 같으며 '지하삼림'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비석이 이곳에 우뚝 세워져있어 마치 관광객들에게 야생 동북호랑이, 동북표범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듯 싶다.

관광객들에게 방천풍경구는 훈춘 려행의 필수 코스다. '동방의 제1촌' 주차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자가용과 캠핑카들이 가득하다. "훈춘은 기후가 적합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미세먼지가 없고 낮에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보이고 밤에는 고개를 들어 별을 셀 수 있다. 방천애국주의교양기지에서는 삼국을 한눈에 보고 일본해를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국의 땅을 밟아보는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료녕에서 온 장효룡은 G331 국도를 따라 단동, 집안을 경유해 훈춘에 왔고 훈춘통상구를 경유하여 다국경 자가운전 관광을 마친 후 흑룡강, 내몽골을 거쳐 신강으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려행을 좋아하는 흑룡강성 관광객 진립봉은 G331 국도를 따라 훈춘에 도착한 후 이곳에서 맛본 랭면, 킹크랩, 꼬치구이 등 미식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최근년간, 훈춘시는 G331 연변개방관광대통로 건설을 추진하고 변경촌의 번영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성당위와 성정부의 '10대 행동' 포치를 철저히 관철, 시달하고 당건설 지도를 핵심으로 하고 인기를 모으는 것을 관건으로 하며 산업 번영을 방향으로 하고 살기 좋은 향촌 건설을 근본으로 하면서 변강부유의 모범, 변강안정의 시범, 변강수호의 모범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올해 5.1 련휴 기간, 훈춘시는 방천풍경구, 와스토크환락섬, 한당거리, 훈춘해물거리 등의 명소로 벌집넷 '5.1' 련휴 동북지역 열기 순위 TOP10의 9위에 올랐고 동북지역 인기 목적지 TOP20의 5위를 차지했다. / 연변일보

룡정 전자상거래맥주축제 펼쳐

일전 룡정시 제1회 전자상거래맥주축제가 개막된 가운데 저녁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시원한 맥주와 맛있는 음식을 맛보면서 축제를 즐기고 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맥주축제는 소비를 인솔하고 취업을 촉진하며 지역 전자상거래 발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룡정시의 관광사업,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리익과 경제적 리익의 호혜상생을 실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전자상거래맥주축제는 6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펼쳐지는데 연변 특색 미식과 우수한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결집돼있으며 맥주축제, 뮤직페스티벌 등 내용으로 꾸며지게 된다. 그중 맥주축제는 매일 노래와 춤, 토크쇼 등의 공연을 바탕으로 '대황벌', '손오공', '저팔계' 등 애니메이션 인기 '캐릭터'들을 초청해 사람들로 하여금 술과 연변의 특색 음식을 맛보는 동시에 뜨거운 여름의 열정과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연변조간